

# 『東醫寶鑑』의 逍遙散에 포함된 麥門冬에 관한 考察

원광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sup>1</sup> ·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sup>2</sup> · 한국전통의학연구소<sup>3</sup>  
송지청<sup>1</sup> · 금경수<sup>1, 2, 3</sup> · 엄동명<sup>2, 3</sup> \*

## A Study on Maekmundong(Liriope platyphylla) of Soyosan in 『Dong-uibogam(東醫寶鑑)』

Song Ji-chung<sup>1</sup> · Keum Kyung-soo<sup>1, 2, 3</sup> · Eom Dong-myung<sup>2, 3</sup> \*

<sup>1</sup>Prof. Graduate School of Oriental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sup>2</sup>Dept. of Classics,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sup>3</sup>Research Center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Soyosan is one of the most famous prescription in Oriental Medicine. It was showed for the first time in 『Hwajegukbang(和劑局方)』, the book of prescriptions, published in Song Dynasty, 1078. However, Soyosan did not include Maekmundong.

Heojun as a author, made 『Dong-uibogam』 in 1613. Soyosan of 『Dong-uibogam』 had Maekmundong.

In this study, I focused on how to get Maekmundong in 『Dong-uibogam』. Nonetheless, Soyosan originally didn't have Maekmundong.

Soyosan and Maekmundong combined easily when Soyosan controlled disease related with Heat [熱]. Therefore, I suggest author or editor might put Maekmundong to Soyosan in 『Dong-uibogam』.

**Key Words** : Soyosan(逍遙散), Dong-uibogam(東醫寶鑑), Maekmundong(麥門冬), Liriope platyphylla

## I. 序論

婦人科 疾患을 치료하는 대표 方劑 중에 하나인 逍遙散은 1078년 宋代 太平惠民和劑局的 『太平惠

民和劑局方』(이하 『局方』이라 함)에 최초로 수록 되었다.<sup>1)</sup> 이후 逍遙散은 여러 中國醫書에서 자주 引用되었으며, 韓國 醫書 중 綜合醫書 혹은 方劑書 같은 경우에도 逍遙散은 거의 빠지지 않고 인용되었다.

韓國의 대표적 綜合醫書인 『東醫寶鑑』(이하 『寶鑑』이라 함)에도 逍遙散이 수록되면서 婦人科

\* 교신저자 : 엄동명. 전북 익산시 신용동 344-2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E-mail : haksan@wku.ac.kr Tel : 063-850-6941

Fax : 063-851-6941

접수일(2009년 7월 19일), 수정일(2009년 8월 5일),

게재확정일(2009년 8월 14일)

1) 서승호. 東醫寶鑑에 手錄된 溫膽湯, 歸脾湯, 逍遙散 및 그 加減方에 대한 考察. 大田大學校 韓醫學研究所 論文集. 2005. 14(1). p.130.

雜病을 치료할 때 사용하는 처방으로 인용되었다. 하지만 處方構成을 살펴보면 내용에서 차이가 난다.

『局方』의 逍遙散(이하 '逍遙散本方'이라 함)을 살펴보면

五心煩熱하고 肢體疼痛하고 頭目昏重하고  
心忪頰赤하고 口燥咽乾하고 發熱盜汗하고  
減食嗜臥하며 及血熱相搏하야 月水不調하  
고 臍腹脹痛하고 寒熱如瘧하며 又療室女血  
弱陰虛하고 營衛不和하고 痰嗽潮熱하고 肌  
體羸瘦하고 漸成骨蒸하면 甘草微炙赤半兩 當歸  
去苗剉微炒 茯苓去皮白者 芍藥白 白朮 柴胡去苗各一兩  
右爲粗末하야 每服二錢水一大盞호대 燒生  
薑一塊切破하고 薄荷少許하야 同煎至七分  
하고 去渣하야 熱服이니 不拘時候<sup>2)</sup>니라  
라 하여 處方에 麥門冬이 存在하지 않는다.

그러나 『寶鑑』의 逍遙散에는 『局方』의 逍遙散과는 달리 麥門冬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이 著者의 의도적인 삽입이었다면 그 背景과 理由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더우기, 『局方』 이후 최근까지 출간된 中國의 綜合醫書 및 方劑書들에서도 逍遙散을 설명하면서 逍遙散에 麥門冬이 存在하지 않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韓國의 綜合醫書 및 方劑書들은 逍遙散에 麥門冬이 수록되어 있다는 사실은 『寶鑑』에 麥門冬이 수록된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局方』으로부터 『寶鑑』 사이에 逍遙散 關聯 처방을 수록한 書籍들을 비교하여 『局方』의 逍遙散本方으로부터 『寶鑑』 逍遙散까지 麥門冬 收錄過程을 살펴보고자 한다.

## II. 研究方法

1) 『寶鑑』의 逍遙散과 아울러 加味逍遙散, 加減逍遙散 등 逍遙散 關聯 처방의 原文을 검색하고, 『寶鑑』에서 引用하였다고 밝힌 原書를 대조해 본다.

2) 卷九 治婦人諸疾. 太平惠民和劑局方. 北京. 民衛生出版社. 1985. p.240.

2) 引用 原書의 逍遙散 및 逍遙散 關聯方 原文을 검색하고, 麥門冬의 存在 與否를 살핀다.

3) 『局方』의 成書시기인 1078년 이후부터 『寶鑑』의 成書시기인 1613년 까지 韓國에서 출간된 醫書들을 대상으로 書籍내에 逍遙散 및 逍遙散 關聯方 收錄 與否와 麥門冬의 存在 與否를 살핀다.

4) 1078년부터 1613년까지의 韓國醫書중 逍遙散 및 逍遙散 關聯方을 引用하였다고 밝힌 引用書들을 대상으로 逍遙散 및 逍遙散 關聯方을 찾아보고 마찬가지로 麥門冬의 存在 與否를 살핀다.

## III. 本論

### 1. 『寶鑑』과 『寶鑑』 引用書籍의 逍遙散 및 逍遙散 關聯方

『寶鑑』에는 逍遙散 및 逍遙散 關聯方<sup>3)</sup>이 婦人, 火, 神, 胞, 前陰, 血의 6개 門에서 引用되었는데, 處方으로는 逍遙散이 婦人門과 火門에서, 加減逍遙散이 火門에서 인용되었고, 加味逍遙散은 2종으로 神門, 胞門, 前陰門에서 1種이, 血門에서 또 다른 1種이 인용되었다.

#### 1) 『寶鑑』의 逍遙散 및 逍遙散 關聯方

##### (1) 逍遙散

胞蒸小便黃赤은 俱宜五蒸湯과 五蒸丸과 麥煎散과 地骨皮散과 鱉甲飲과 補天丸과 逍遙散(方見婦人)과 地仙散과 園魚散<sup>4)</sup>하리

婦人虛勞엔 宜用滋陰百補丸 人參荊芥散 逍遙散 加味逍遙散 滋血湯 滋陰地黃丸 茯神湯 三合湯<sup>5)</sup>이니라

逍遙散은 治月經不調와 及血虛五心煩熱과

3) 竹皮逍遙散 및 人參逍遙散 除外.

4) 火門·骨蒸熱. 許浚.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51. p.421.

5) 婦人門·婦人雜病. 許浚.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51. p.626.

寒熱如瘧이니라 白朮 白芍藥 白茯苓 柴胡 當歸 麥門冬 各一錢 甘草 薄荷 各五分 니 右剉하여 作一貼 하고 入薑三片 하여 水煎服이니라 入門<sup>6)</sup>

處方은 『醫學入門』(이하 『入門』이라 함)에서 引用하였다고 밝혔으며, 『局方』逍遙散에 麥門冬이 加해져 있다.

(2) 加減逍遙散

氣血兩虛와 有汗潮熱에 宜加減逍遙散이니라

加減逍遙散은 治子午潮熱이니 逍遙散本方(方見婦人)에 加胡黃連 麥門冬 地骨皮 黃芩 秦艽 木通 車前子 各等分 하니 右剉하고 入燈心一撮하여 同煎服이니라 醫經<sup>7)</sup>

處方은 『古今醫鑑』(이하 『醫鑑』이라 함)에서 引用하였다고 밝혔으며, 逍遙散本方에 麥門冬, 胡黃連, 地骨皮, 黃芩, 秦艽, 木通, 車前子, 燈心이 加해져 있다.

(3) 加味逍遙散 I

心藏虛損과 氣血不足에 宜滋陰寧神湯 清心溫痰湯 歸神丹이며 婦人은 宜加味逍遙散(方見婦人)이니라<sup>8)</sup>

室女思男으로 以致血崩成勞하면 十分難治니 宜四物湯加柴胡黃芩커니 或加味逍遙散(方見婦人)이니라 入門<sup>9)</sup>

陰戶腫痛不閉하고 寒熱尿澁하면 宜加味逍遙散(方見婦人)에 加知母 地骨皮 車前子니라 入門(中略) 濕痒出水痛者는 憂思過傷所致니 歸脾湯(方見神門)이오(中略) 潰爛者는 宜加味逍遙散이니라 入門<sup>10)</sup>

婦人虛勞엔 宜用滋陰百補丸 人參荊芥散 逍遙散 加味逍遙散 滋血湯 滋陰地黃丸 茯神湯 三合湯이니라<sup>11)</sup>

加味逍遙散은 治血虛煩熱하고 潮熱盜汗하고 痰嗽似勞니라 白芍藥 白朮各一錢二分 知母 地骨皮 當歸各一錢 白茯苓 麥門冬 生地黃各八分 梔子 黃柏各五分 桔梗 甘草各三分 니 右剉作一貼하여 水煎服이니라 入門<sup>12)</sup>

處方은 『入門』에서 引用하였다고 밝혔으며, 逍遙散本方에서 柴胡가 빠지고 知母, 地骨皮, 麥門冬, 生地黃, 梔子, 黃柏, 桔梗이 加해져 있다.

(4) 加味逍遙散 II

嗽血者는 痰嗽帶血하니 本於六君子湯하고 加桑白皮 片芩 枳殼 五味子하며 有火者는 加味逍遙散이니라<sup>13)</sup>

加味逍遙散은 治痰中見血이니라 牡丹皮 白朮各一錢半 當歸 赤芍藥 桃仁 貝母各一錢 山梔 黃芩各八分 桔梗七分 青皮五分 甘草三分 니 右剉作一貼하여 水煎服이니라 入門<sup>14)</sup>

處方은 『入門』에서 引用하였다고 밝혔으며, 逍遙散本方에 白茯苓, 柴胡를 去하고 牡丹皮, 桃仁, 貝母, 梔子, 黃芩, 桔梗, 陳皮가 加해져 있다.

이처럼 『寶鑑』의 逍遙散은 麥門冬이 加해져 있으며, 증상에 따른 加減方으로 加味逍遙散<sup>15)</sup>이나 加減逍遙散에도 麥門冬이 모두 存在한다.

2) 『入門』의 逍遙散 및 逍遙散關聯方

『寶鑑』이 引用했다고 밝힌 『入門』의 逍遙散 및 逍遙散關聯方 原文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逍遙散

逍遙散은 治婦人月經不調와 及血虛有熱하니 無汗者 最宜니라 白朮 白芍 茯苓 柴胡 當歸 各等分 甘草 減半 니 薄荷少許와 煨姜하여 煎服이니라<sup>16)</sup>

6) 許浚. 婦人門·婦人雜病.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51. p.626.  
7) 許浚. 火門·潮熱.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51. p.422.  
8) 許浚. 神門·癲癩.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51. p.99.  
9) 許浚. 胞門·崩漏治法.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51. p.159.  
10) 許浚. 前陰門·陰腫陰痒陰瘡陰冷交接出血.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51. p.159.

11) 許浚. 婦人門·婦人雜病.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51. p.625.  
12) 許浚. 婦人門·婦人雜病.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51. p.626.  
13) 許浚. 血門·咳血嗽血唾血咯血.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51. pp.109-110.  
14) 許浚. 血門·咳血嗽血唾血咯血.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51. pp.109-110.  
15) 加味逍遙散 II는 除外  
16) 李梴. 通用古方詩括·婦人·調經. 醫學入門. 서울. 고려의학.

處方은 逍遙散本方과 同一하며, 『寶鑑』의 逍遙散과는 달리 麥門冬이 存在하지 않는다.

(2) 加減逍遙散

**加減逍遙散은** 治痰中見血이니라 牡丹皮 白朮一錢半 當歸 芍藥 桃仁 貝母各一錢 山梔 黃芩各八分 桔梗七分 青皮五分 甘草三分이니 水煎服이니라<sup>17)</sup>

處方은 逍遙散本方에 白茯苓, 柴胡를 去하고 牡丹皮, 桃仁, 貝母, 梔子, 黃芩, 桔梗, 青皮를 加한 것으로 『寶鑑』에서 加味逍遙散Ⅱ로 引用한 것이다.

(3) 加味逍遙散

**加味逍遙散** 白芍 白朮各一錢 白茯苓 麥門冬 生地各六分 甘草 桔梗各二分 地骨皮 當歸各八分 山梔仁 黃柏各三分이니 水煎溫服이니라<sup>18)</sup>

處方은 逍遙散本方에 柴胡를 去 하고 地骨皮, 麥門冬, 生地黃, 梔子, 黃柏, 桔梗을 加 한 것으로 『寶鑑』에서 加味逍遙散Ⅰ로 引用한 것이다. 단 『寶鑑』에서는 知母가 더 加해져 있다.

이처럼 『入門』에는 인용된 逍遙散의 경우 麥門冬이 存在하지 않으며, 증상에 따른 加減方으로 加味逍遙散은 麥門冬이 加해져 『寶鑑』에서 그대로 加味逍遙散Ⅰ로 引用되었고 加減逍遙散은 麥門冬이 存在하지 않으며 『寶鑑』에서 加味逍遙散Ⅱ로 引用되었다.

3) 『醫鑑』의 逍遙散 및 逍遙散關聯方

『寶鑑』이 引用했다고 밝힌 『醫鑑』은 明代 龔信이 纂輯하고, 龔廷賢이 續編했다. 모두 十六卷으로 되어 있으며 綜合醫書로 1589년에 刊行되었다.<sup>19)</sup>

(1) 逍遙散

**加減逍遙散은** 治肝脾血虛發熱한데 或潮熱

1989. p.585.

17) 李梴. 雜病用藥賦·咯血. 醫學入門. 서울. 고려의학. 1989. p.513.

18) 李梴. 通用古方詩括·婦人·調經. 醫學入門. 서울. 고려의학. 1989. p.585.

19) 龔信 纂輯, 龔廷賢 續編. 王立 等 校注. 古今醫鑑. 江西. 江西科學技術出版社. 1990. p.1.

거나 或自汗盜汗거나 或頭痛目澁거나 或怔忡不寧하고 煩赤口乾거나 或月經不調거나 或肚腹作痛거나 或小腹重墜하고 水道澀痛거나 或腫痛出膿하고 內熱作渴이니라 當歸 酒洗 白芍 酒炒 白朮 土炒 白茯苓 柴胡 各一錢 甘草 炙 五分 梔 上銼一劑하고 煨薑一片과 薄荷少許 해야 水煎服이니라<sup>20)</sup>

處方은 逍遙散을 직접 記述하지는 않았지만, 處方을 설명하는 條文 뒤에 증상에 따른 加減을 열거하여 실제로는 逍遙散을 記述한 것과 다름없으며 逍遙散本方과 같이 역시 麥門冬이 존재하지 않는다.

(2) 加減逍遙散

**加減逍遙散은** 治子午潮熱이니라 胡黃連 麥門冬 黃芩 地骨皮 秦艽 木通 車前子 梔 上銼一劑하고 清水로 每以浸濕燈心해야 煎服이니라<sup>21)</sup>

處方은 逍遙散本方에 胡黃連, 麥門冬, 黃芩, 地骨皮, 陳皮, 木通, 車前子, 燈心이 加해져 있으며, 『寶鑑』에서 加減逍遙散으로 引用한 것과 같다.

『醫鑑』의 處方들 중에 특이한 것은 癡狂門에 開迷散<sup>22)</sup>, 婦人科 虛勞門에 濟陰至寶丹<sup>23)</sup>, 二分散<sup>24)</sup>이 수록되어 있는데 모두 逍遙散의 變方들이

20) 龔信 纂輯, 龔廷賢 續編. 王立 等 校注. 婦人科·虛勞門. 古今醫鑑. 江西省. 江西科學技術出版社. 1990. p.299.

21) 龔信 纂輯, 龔廷賢 續編. 王立 等 校注. 古今醫鑑. 江西. 江西科學技術出版社. 1990. p.167.에 따르면 治子午潮熱과 胡黃連 사이에 ‘逍遙散 加’란 구절이 들어가야 한다고 했는데 타당하다고 본다.

22) 龔信 纂輯, 龔廷賢 續編. 王立 等 校注. 古今醫鑑. 江西省. 江西科學技術出版社. 1990. p.167. “治婦人癡疾唱歌無時 逾牆上屋者 乃榮血逆于心包所致 當歸一錢 白朮炒一錢 芍藥一錢 白茯苓八分 甘草炙七分 桃仁一錢五分 蘇木一錢 紅花一錢 遠志泡去骨一錢五分 生地黃一錢五分 上銼 生薑煎服 或用此方煉蜜爲丸 辰砂爲衣”

23) 龔信 纂輯, 龔廷賢 續編. 王立 等 校注. 古今醫鑑. 江西省. 江西科學技術出版社. 1990. p.299. “治婦人諸虛百損五勞七傷經脈不調肢體羸瘦 此藥專調經滋血脈補虛勞扶元氣健脾胃養心肺潤咽喉清頭目定神魂退潮熱除骨熱止喘嗽化痰涎收盜汗止泄瀉開鬱氣利胸膈療腹痛解煩渴散寒熱祛體疼大有奇效不可真術 當歸酒洗一錢 白芍酒炒八分 白茯苓八分 白朮去蘆一錢 陳皮八分 知母八分最能瀉虛中之火生用 貝母八分去心 香附便制八分 柴胡酒炒三分 薄荷三分 地骨皮去皮八分 甘草三分 麥門冬去心八分 上銼一劑 用煨生薑三片 水煎溫服”

다.

이처럼 『寶鑑』에는 인용된 逍遙散의 경우 逍遙散本方과 같이 麥門冬이 存在하지 않으며, 증상에 따른 加減方으로 加減逍遙散은 麥門冬이 加해져 『寶鑑』에서 加減逍遙散으로 引用되었다.

지금까지는 『寶鑑』의 逍遙散 및 逍遙散 關聯方을 引用한 醫書를 살펴보았는데, 麥門冬이 왜 添加되었는가에 대한 說明은 찾을 수 없다. 이에 『局方』 이후 『寶鑑』 이전까지의 韓國에서 出刊된 醫學書籍을 살펴보고자 한다.

## 2. 『局方』 이후 『寶鑑』 이전에 出刊된 韓國醫學書籍

韓國醫學書籍들 중 逍遙散 및 逍遙散 關聯方을 찾아보았는데, 『御醫撮要』, 『鄉藥救急方』, 『鄉藥採取月令』, 『胎產要錄』, 『救急方』, 『救急簡易方診解』, 『簡易辟瘟方』, 『分門瘟疫易解方』, 『攷事撮要』, 『救急良方』, 『醫家必用』, 『診解救急方』에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鄉藥集成方』, 『醫方類聚』 『救急易解方』, 『醫林撮要』 등에는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있었다.

### 1) 『鄉藥集成方』의 逍遙散 및 逍遙散關聯方

『鄉藥集成方』(이하 『鄉集』이라 함)은 현재 전하고 있는 우리나라 最古의 醫書로, 撰者의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그 당시 民間 古老들이 救急에 常用하던 鄉藥經驗方을 高麗 高宗 二十三年(1236년)에 江華島 大藏都監에서 수집 간행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朝鮮 太宗 十七年(1417년)에 重刊한 것이 日本 宮內廳書陵部에 秘藏되어 있다.<sup>24)</sup>

#### (1) 逍遙飲

24) 龔信 纂輯, 龔廷賢 續編, 王立 等 校注, 古今醫鑑, 江西省, 江西科學技術出版社, 1990. p.299. “治婦人室女月事不調 寒熱往來痰嗽狀若勞證 遷延歲月久不成孕有勻經消痰去熱 和表裏養陰陽倍飲食 當歸 川芎 白芍 熟地 人參 白朮 白茯苓 甘草 詩號 黃芩 半夏 痰盛家橘皮 上銑一齊 薑棗煎服”

25) 韓國醫學大系, 서울, 驪江出版社, 1994. 卷6. p.1.

**聖濟總錄逍遙飲은** 治婦人血風血氣하고 煩燥口乾咳嗽하고 四肢無力하고 多臥少起하고 肌骨蒸熱이니라 柴胡 白茯苓 赤芍藥 白朮 劉楚炒 當歸切焙各二兩 獨右 右麤末하야 每服二錢이니 水一鍾에 入生薑一 棗大하야 同煎七分하고 去滓溫服이니 不拘時니라<sup>26)</sup>

處方은 逍遙散이 아닌 逍遙飲이며, 逍遙散本方에 甘草가 去해져 있고, 『聖濟總錄』(이하 『總錄』이라 함)에서 引用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麥門冬은 存在하지 않는다.

### 2) 『醫方類聚』의 逍遙散 및 逍遙散關聯方

『醫方類聚』(이하 『類聚』라 함)은 金禮夢 등이 1443년에 撰한 書籍으로 1465년에 初刊되었으나 原本은 佚失되었으며, 1861년에 日本에서 活字로 266卷本을 印刷<sup>27)</sup>하였고 현재는 이 本이 전해지고 있다.

#### (1) 逍遙散

**和劑局方逍遙散은** 治婦人血虛勞倦하고 五心煩熱하고 肢體疼痛하고 頭目昏重하고 心忪煩赤하고 口燥咽乾하고 發熱盜汗하고 減食嗜臥하며 血熱相搏하야 月水不調하고 臍腹脹痛하고 寒熱如瘧하며 室女血弱陰虛하야 營衛不和하야 痰嗽潮熱하고 肌體羸瘦하고 漸成骨蒸이니라 白朮 白茯苓 當歸去蘆酒浸剉同蜜微炒 白芍藥 柴胡各一兩 甘草炙半兩 獨上 咬咀 每二錢하야 水一大盞에 燒生薑一塊切破와 薄荷少許하야 同煎至七分하야 去滓熱服하야 不拘時니라<sup>28)</sup>

處方은 『局方』의 逍遙散을 따랐음을 밝히고 있고, 따라서 麥門冬이 存在하지 않는다.

또 다른 逍遙散은 卷二百八, 婦人門三, 調經三, 和劑局方, 婦人諸疾<sup>29)</sup>에 나와 있는데 위의 逍遙散과 다르지 않다.

26) 婦人諸病門·婦人風眩頭痛, 鄉藥集成方·韓國醫學大系(卷6), 서울, 驪江出版社, 1994. p.81.

27) 漢醫學大辭典編纂委員會, 漢醫學大辭典 醫師文獻編,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219.

28) 卷百五十·諸虛門八·簡易方·痛治, 醫方類聚(卷7),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6. p.398.

29) 醫方類聚(卷10),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6.p.65.

(2) 加味逍遙散

**加味逍遙散은** 治患癩疾하야 歌唱無時하고 逾牆上屋하니 乃榮血迷于心包所致니라 加遠志去心 桃仁去皮尖 蘇木 紅花各一錢 하야 水一杯半煎이니라<sup>30)</sup>

逍遙散本方に 遠志, 桃仁, 蘇木, 紅花를 加해져 있고 麥門冬은 存在하지 않는다.

3) 『救急易解方』의 逍遙散 및 逍遙散關聯方

『救急易解方』(이하 『易解』라고 함)은 燕山君四年(1498년)에 校書館에서 刊行한 것으로, 『鄉集』과 『類聚』 등의 醫書는 너무 活潑하며, 『救急方』은 지나치게 간단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라 한다.<sup>31)</sup>

(1) 逍遙散

**逍遙散은** 治五心煩熱하고 月水不調하고 腹痛寒熱이니 每服水一大杯하고 燒生薑一塊切破와 薄荷少許하야 煎七分하야 熱服하니 不拘時니라<sup>32)</sup>

處方 構成을 직접 인용하지는 않아 麥門冬의 存在 與否를 판단하기 어렵다.

4) 『醫林撮要』의 逍遙散 및 逍遙散關聯方

『醫林撮要』(이하 『撮要』라 함)는 1567년 경 出刊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楊禮壽가 撰한 것으로 8卷 原本에 後人들이 增添하여 13卷으로 再版 刊行되었다.

(1) 逍遙散 I

**逍遙散은** 治血虛勞倦하고 五心煩熱하고 頭目昏重하며 及血熱相搏하야 月水不調하며 室女血弱陰虛等이니라 白茯苓 白朮 當歸酒浸半日微炒 白芍藥 北柴胡各一兩 甘草炙五錢 薄荷 右切하야 每服三錢水一盞半하야 薑三片과 麥門冬二十粒하야 煎不拘時服니라 一方加知母,地骨皮

局方得效婦人門<sup>33)</sup>

30) 婦人門八·諸風二·得效方·癲狂.醫方類聚(卷10).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6. p.189.

31) 韓國醫學大系(卷1).서울.驪江出版社. 1994. pp.2-3.

32) 婦人調經門. 救急易解方. 韓國醫學大系. 서울. 驪江出版社. 1994. p.341.

處方은 逍遙散本方に 麥門冬이 加해져 있다. 『寶鑑』처럼 麥門冬이 處方內에 열거되어 있지만 生薑과 같은 水準에서 麥門冬이 添加되어 있다. 이는 『寶鑑』 逍遙散이 『局方』 逍遙散과 달리 處方構成에 있어서 麥門冬이 이미 存在하게 된 理由를 밝히는 端初가 될 수 있다.

(2) 逍遙散 II

**逍遙散은** 治婦人室女の 氣虛血少하야 月水愆期하고 虛勞發熱하고 咳嗽頭眩等證이니라 白朮 當歸 生地黃 黃芩 知母炒各一錢 白茯苓 白芍藥各八分 柴胡七分 薄荷四分 陳皮六分 甘草炙三分 半夏五分 니 右搗 水二鍾과 薑三片과 棗一枚하야 煎服하니 不拘時니라 集略婦人<sup>34)</sup>

處方은 逍遙散本方に 生地黃, 黃芩, 知母, 陳皮, 半夏가 加해져 있으며, 麥門冬은 存在하지 않는다.

(2) 加味逍遙散

**加味逍遙散은** 治肝脾血虛發熱하며 或潮熱하고 自汗盜汗하고 頭痛目澁하고 怔忡不寧하고 頰赤口乾하며 或月經不調하야 肚腹作痛하며 或小腹重墜하야 水道澀痛하고 內熱作渴이니라 當歸酒洗 白芍藥酒炒 白朮土炒 白茯苓 柴胡酒炒各一錢 甘草炙五分 薄荷 右剉一劑하야 煨薑一片과 薄荷少許하야 水煎服이니라<sup>35)</sup>

處方名은 加味逍遙散이지만 內容은 逍遙散本方이며 역시 麥門冬이 存在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局方』 이후 『寶鑑』 까지 韓國에서 出刊된 醫學書籍 중에서 逍遙散 및 逍遙散 關聯方을 引用한 醫書를 살펴보았다. 『鄉集』, 『類聚』에는 麥門冬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撮要』에는 麥門冬이 加해져 있어 後대 『寶鑑』의 逍遙散 處方構成에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된다. 다음은 『類聚』, 『撮要』에서 逍遙散을 引用하면서 引用書로 기재한 中國醫學書籍을 살펴보고자 한다.

33) 婦人門·經候.醫林撮要·國譯韓國醫學大系(卷8). 서울. 海동 의학사. 1999. p.272.

34) 婦人門·經候. 婦人門·經候. 醫林撮要. 國譯韓國醫學大系. 서울. 海동 의학사. 1999. 卷8. p.272.

35) 婦人門·經候.醫林撮要·國譯韓國醫學大系(卷8). 서울. 海동 의학사. 1999. p.277.

### 3. 『類聚』, 『鄉集』, 『撮要』에 인용된 中國醫學書籍

『鄉集』에서 인용書로 기재한 『總錄』, 『類聚』에서 인용書로 기재한 『婦人大全良方』(이하 『良方』이라 함), 『衛生寶鑑』(이하 『衛生』이라 함) 그리고 『撮要』에서 인용書로 기재한 『世醫得效方』(이하 『得效』라 함)과 『醫方集略』(이하 『集略』이라 함)을 살펴보았다.

#### 1) 『總錄』의 逍遙散 및 逍遙散關聯方

『總錄』은 1117년 宋의 太醫院에서 刊行되었다. 모두 二百卷으로 歷代醫籍을 採集하고, 아울러 民間驗方 및 醫家の 處方을 徵集하여 整理 匯編한 것이다.<sup>36)</sup>

##### (1) 逍遙散

治婦人血風血氣과 煩燥口乾咳嗽와 四肢無力과 多臥少起와 肌骨蒸熱하니 逍遙散方에 柴胡去苗 白茯苓去黑皮 赤芍藥 白朮銼麩炒 當歸切 各二兩各 上五味粗搗篩하야 每服二錢匕 水一盞하고 入生薑一棗大 甘草一寸하야 同煎至七分하야 去滓溫服하니 不拘時니<sup>37)</sup>

處方은 逍遙散本方으로 麥門冬이 存在하지 않는다.

또 다른 逍遙散이 있으나 處方 構成이 위와 同一하다.

#### 2) 『良方』의 逍遙散 및 逍遙散關聯方

『良方』은 宋代 陳自明이 1237년에 撰한 것으로 모두 二十四卷이며, 宋代 以前의 婦人科에 관한 著作을 정리 편집한 것으로 八門으로 되어 있다.

##### (1) 加味逍遙散

治肝脾血虛有熱하고 遍身搔癢하며 或口燥

咽乾하고 發熱盜汗하고 食少嗜臥하고 小便澀滯等症하며 又治癰癩流注와 虛熱等瘡이니라 甘草炙 當歸炒 芍藥酒炒 茯苓 白朮炒 各一錢 柴胡 牡丹皮 山梔炒五分 各一 右水煎服이니라<sup>38)</sup>

處方은 逍遙散本方에 牡丹皮, 梔子가 加해져 있고 麥門冬은 存在하지 않는다.

##### (2) 逍遙散

加味逍遙散 바로 뒤에 있으며<sup>39)</sup>

即前方에 去丹皮 山梔니라

하여, 處方은 麥門冬이 없는 逍遙散本方이다.

#### 3) 『衛生』의 逍遙散 및 逍遙散關聯方

『衛生』은 모두 二十四卷으로 元代 羅天益이 撰하였다.<sup>40)</sup>

##### (1) 逍遙散

治血虛發熱하고 經候不調니라 甘草炙半兩 當歸 白茯苓 白朮 柴胡 芍藥各一兩 各一 右剉하야 每服二錢이니 水一大盞하야 燒生薑一塊 切破와 薄荷少許하야 同煎至七分하고 去粗하야 熱服하니 不拘時候니<sup>41)</sup>

處方은 逍遙散本方이다.

#### 4) 『得效』의 逍遙散 및 逍遙散關聯方

『得效』는 元代 危亦林的 撰으로 1345년 刊行되며 各科의 疾患을 脈·症·治·方으로 분류하여 기술하였다.<sup>42)</sup>

##### (1) 逍遙散

治血虛勞倦하고 五心煩熱하고 肢體疼痛하고 頭目昏重하고 心忪頰赤하고 口燥咽乾하고 發熱盜汗하고 減食嗜臥하며 及血熱相搏하야 月水不調하고 臍腹脹痛하고 寒熱如瘧

38) 陳自明, 卷二十四·瘡瘍門·婦人結核論第四, 婦人大全良方, 台北, 文光圖書有限公司, 1985, p.28.

39) 陳自明, 卷二十四·瘡瘍門·婦人結核論第四, 婦人大全良方, 中國醫學大系(卷10), 서울, 大星文化社, 1985, p.28.

40) 漢醫學大辭典編纂委員會, 漢醫學大辭典 醫師文獻編,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197.

41) 羅天益, 卷十八·婦人門, 衛生寶鑑, 香港, 商務印書館, 1981, p.289.

42) 袁鍾圖 외 主編, 中醫辭海, 河北,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9, p.832.

36) 漢醫學大辭典編纂委員會, 漢醫學大辭典 醫師文獻編,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123.

37) 卷一百五十五·婦人血風門·婦人血風走注, 聖濟總錄, [http://www.zysj.com.cn/lilunshuji/shengjizonglu/122-163-3.html#m0-0]

하며 又主室女血弱陰虛하야 營衛不和하야 癆嗽潮熱하고 肌體羸瘦하고 漸成骨蒸이니라 白茯苓 白朮去蘆 當歸去蘆酒浸半日微炒 白芍藥 北柴胡各一兩 甘草炙兩半 右剉散하야 每服三錢이니 水盞半에 薑三片과 麥門冬二十粒去心하야 煎하야 不拘時服이니라 一方엔 加知母 地骨皮니라<sup>43)</sup>

處方은 逍遙散本方에 麥門冬을 加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앞서 살펴보았던 『撮要』의 逍遙散 處方 末尾에 『得效』를 引用書로 밝혔는데, 『得效』와 『撮要』의 處方構成이 同一하므로, 麥門冬이 들어간 『撮要』의 逍遙散은 『得效』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5) 『集略』의 逍遙散 및 逍遙散關聯方

『集略』은 郭鑒 撰으로 자신의 跋文을 보면 嘉靖年間(1545년)에 刊行되었음을 알 수 있다.<sup>44)</sup>

(1) 逍遙散 I

凡女子十七八歲에 經脈不通하고 顏色青黃하고 飲食少進하고 寒熱往來하고 頭疼目眩하고 五心煩悶하고 嘔吐膨脹하니 此는 脾胃俱弱하야 血氣不調하니 先服逍遙散 八物湯이니라 當歸五錢 白芍藥 柴胡 黃芩各四錢 熟地黃 川芎 半夏各三錢 人參 麥門冬各二錢 甘草一錢 右爲散하야 分作四服이니 水一鍾半에 生薑三片하야 煎至七分하야 空心熱服이니라<sup>45)</sup>

處方은 逍遙散本方에 白朮, 白茯苓을 去하고 麥門冬, 半夏, 熟地黃, 人參, 川芎, 黃芩을 加하였다. 處方名은 逍遙散이지만 기존의 逍遙散과는 다른 부분이 많다.

(2) 逍遙散 II

治婦人室女 氣虛血少하야 陰水愆期하고 虛勞發熱하고 咳嗽頭眩等症이니라 白朮一錢 當歸一錢 白茯苓八分 白芍藥八分 柴胡七分 薄荷四分 陳皮六分 甘草炙三分 生地黃一錢 半夏五分 黃芩一錢

錢 知母炒一錢 右水二鍾에 薑三片 棗一箇하야 煎服하니 不拘時니라<sup>46)</sup>

處方은 逍遙散本方에 半夏, 生地黃, 知母, 陳皮, 黃芩이 加해져 있으며, 『撮要』 婦人門 經候에서 引用한 逍遙散이다.

(3) 逍遙散 III

產後發熱하고 口乾作渴하고 脣裂生瘡者는 胎後因食熱物過多하야 血熱積於脾胃하야 氣攻上焦하니 煩渴故爾니라 當歸 白芍藥 乾葛各一錢 生地黃 川芎 黃芩各八分 人參 麥門冬 柴胡各五分 烏梅一箇 甘草三分 水一鍾으로 煎至七分하야 空心服이니라<sup>47)</sup>

處方은 逍遙散本方에 白朮, 白茯苓을 去하고 乾葛, 生地黃, 川芎, 黃芩, 人參, 麥門冬, 烏梅을 加하였다. 이 역시도 逍遙散 I과 같이 處方名은 逍遙散이지만 기존의 逍遙散과는 다른 부분이 많다.

지금까지 『類聚』, 『鄉集』, 『撮要』에 引用된 中國醫學書籍을 살펴보았는데, 『撮要』에서 引用한 『得效』에 처음으로 逍遙散에 麥門冬을 加하는 내용이 나와있다. 따라서 『寶鑑』 逍遙散의 麥門冬 첨가는 『得效』, 『撮要』 그리고 『寶鑑』의 관계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4. 『萬病回春』·『壽世保元』에 引用된 中國醫學書籍

『寶鑑』에서 逍遙散을 敍述하면서 引用한 書籍이 『入門』과 『醫鑑』인데, 이중 『醫鑑』은 龔信과 龔廷賢이 관련된 書籍으로 비슷한 시기에 刊行된 龔廷賢이 撰한 『萬病回春』(이하 『回春』이라 함)과 『壽世保元』(이하 『保元』이라 함)을 살펴 보았다.

1) 『回春』의 逍遙散 및 逍遙散關聯方

『回春』은 1587年 龔廷賢이 撰한 綜合醫書로 모두 八卷으로 되어 있다.

43) 危亦林. 卷十五·通治·煩熱. 世醫得效方·中國醫學大系(卷14). 서울. 大星文化社. 1994. p.504.  
44) 中國醫籍通考. 上海. 上海中醫學院出版社. 1991. p.2513.  
45) 郭鑒. 卷之六·婦人門附論·調經論. 醫方集略·古蹟本.

46) 郭鑒. 卷之六·婦人門附論·調經論. 醫方集略·古蹟本.  
47) 郭鑒. 卷之六·產後附論·產後醋墨. 醫方集略·古蹟本.

## (1) 逍遙散

治肝脾血虛發熱하며 或潮熱커나 或自汗盜汗커나 或頭痛目眩커나 或怔忡不寧하고 煩赤口乾커나 或月經不調커나 或肚腹作痛커나 或小腹重墜하야 水道澀痛커나 或腫痛出膿하고 內熱作渴이니라 當歸酒洗 白芍酒炒 白朮土炒 白茯苓 柴胡酒炒各一錢 甘草炙五分 上銜一劑하야 煨薑一片과 薄荷少許하야 水煎服이니라<sup>48)</sup>

處方은 逍遙散本方으로 麥門冬이 없다.

## (2) 加味逍遙散 I

앞서 逍遙散 處方 末尾<sup>49)</sup>에

加牡丹皮 梔子炒 名加味逍遙散

이라 하였다.

## (3) 加味逍遙散 II

婦人癩疾로 唱歌無時하고 逾牆上屋者는 乃榮血迷于心包所致也니라 當歸 白芍炒 白朮去蘆 茯苓去皮 柴胡 生地 遠志去心 桃仁去皮尖 蘇木 紅花 甘草 上銜一劑하고 煨薑一片하야 水煎溫服이니라 有熱者는 加入小柴胡湯에 生地 辰砂하야 用水煎服이니라<sup>50)</sup>

處方은 逍遙散本方에 生地黃, 遠志, 桃仁, 蘇木, 紅花를 加했다.

## (4) 加減逍遙散

子午潮熱者는 加減逍遙散이니 加黃芩 胡黃連 麥門冬 地骨皮 秦艽 木通 車前子 燈心하야 水煎服이니라<sup>51)52)</sup>

處方은 逍遙散本方에 黃芩, 胡黃連, 麥門冬, 地骨皮, 秦艽, 木通, 車前子, 燈心を 加하여 『醫鑑』, 『寶鑑』의 加減逍遙散과 같다.

## 2) 『保元』의 逍遙散 및 逍遙散關聯方

48) 龔廷賢. 婦人門·虛勞, 萬病回春.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p.344.

49) 龔廷賢. 婦人門·虛勞, 萬病回春.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p.344.

50) 龔廷賢. 癩狂門, 萬病回春.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p.221.

51) 龔廷賢. 發熱門, 萬病回春.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p.184.

52) 내용상 『醫鑑』과 『保元』의 加減逍遙散과 같이 '加減逍遙散' 대신 '逍遙散'이 들어가야 맞다.

『保元』은 明代 龔廷賢의 撰한 것으로 모두 十卷으로 되어 있으며 대략 17世紀 初에 成書되었다.<sup>53)</sup>

## (1) 逍遙散 I

室女十七八歲에 經脈不通이 或百日커나 或半年하며 顏色青黃하고 飲食少進하고 寒熱往來하고 四肢困倦하고 頭疼目眩하고 肚痛結塊하고 五心煩熱하고 嘔吐膨脹하니 此는 乃脾胃受傷하야 血氣俱弱한에 誤食生冷이니 急宜和氣血하야 扶脾胃리니 先以逍遙散하고 次服加味八物湯하고 後服調經丸이니라 當歸酒洗一錢五分 白芍酒炒一錢 柴胡一錢 黃芩一錢 川芎七分 熟地黃七分 半夏薑炒七分 人參五分 麥門冬去心五分 甘草四分 上銜散하야 生薑三片하야 水煎熱服하고 後服八物湯十劑하고 又可調經丸 數服이니라 若少睡엔 加酸棗仁(炒)하야 以斂心血이니라<sup>54)</sup>

處方은 白朮, 白茯苓을 去하고 黃芩, 熟地黃, 川芎, 半夏, 人參, 麥門冬을 加한 것이다. 이 處方은 앞서 보았던 『集略』 婦人 調經門에 있는 逍遙散 I 그리고 『醫鑑』 虛勞門의 二分散과 構成上 同一하다.

## (2) 逍遙散 II

婦人이 血虛勞倦하고 五心煩熱하고 肢體疼痛하고 頭目昏重하고 心忪顛躁하고 口燥咽乾하고 發熱盜汗하고 減食嗜臥하며 及血熱相搏하야 月水不調하고 臍腹脹痛하고 寒熱如瘧하며 又治室女血弱陰虛하야 營衛不和하야 痰涎潮熱하고 肢體羸瘦하야 以致骨蒸勞熱이니라 當歸 白朮去皮炒 白芍酒炒 白茯苓去皮 柴胡 甘草炙各一錢 上銜하야 煨薑一塊과 薄荷少許하야 水煎溫服이니라<sup>55)</sup>

處方에는 麥門冬이 없으며 逍遙散本方과 같다.

## (3) 加味逍遙散 I

53) 漢醫學大辭典編纂委員會. 漢醫學大辭典 醫師文獻編.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134.

54) 龔廷賢. 婦人科·調經諸方. 壽世保元·明清名醫全書大成 龔廷賢 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705.

55) 廷賢. 婦人科·虛勞門. 壽世保元·明清名醫全書大成 龔廷賢 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715.

婦人癲疾하야 歌唱無時하고 窳垣上屋者는 乃榮血迷于心包所致也니라 當歸 白芍炒 白朮去蘆 白茯苓去皮 生地黃 柴胡 遠志去心 桃仁去皮尖 蘇木 紅花 甘草를 上銜一劑하야 煨薑一片하야 水煎服이니라 有熱엔 加小柴胡湯에 生地 辰砂하야 水煎服이니라<sup>56)</sup>

處方은 逍遙散本方에 生地黃, 遠志, 桃仁, 蘇木, 紅花를 加하였다. 이는 『醫鑑』 癲狂門의 開迷散, 그리고 『回春』의 加味逍遙散Ⅱ와 處方構成이 同一하다.

(4) 加味逍遙散Ⅱ  
逍遙散Ⅱ 末尾에

加牡丹皮 山柰仁炒를 名加味逍遙散<sup>57)</sup>이라 하였는데, 이는 『良方』의 加味逍遙散, 『回春』의 加味逍遙散과 構成上 同一하다.

(5) 加減逍遙散

治子午潮熱이니라 當歸二錢 白芍二錢 白朮一錢五分 茯苓三錢 柴胡八分 甘草八分 胡黃連六分 麥門冬二錢 黃芩二錢 地骨皮三錢 秦艽三錢 木通二錢 車前子三錢 燈心十根을 上銜하야 水煎服이니라<sup>58)</sup>

處方은 逍遙散本方에 黃芩, 胡黃連, 麥門冬, 地骨皮, 陳皮, 木通, 車前子, 燈心이 加해져 있으며, 이는 『回春』, 『醫鑑』 그리고 『寶鑑』의 加減逍遙散과 構成上 同一하다.

지금까지 『醫鑑』과 관련하여 同一人이 撰한 『回春』과 『保元』을 살펴보았다. 역시 逍遙散은 『局防』의 逍遙散을 인용하여 麥門冬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龔廷賢의 著述에 의하여 逍遙散 및 逍遙散 關聯方은 이전과 다른 다양한 加味 혹은 加減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5. 『寶鑑』以後의 中國醫書

56) 廷賢. 癲狂門. 壽世保元·明清名醫全書大成 龔廷賢 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p.629.  
57) 廷賢. 婦人科·虛勞門. 壽世保元·明清名醫全書大成 龔廷賢 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p.715.  
58) 廷賢. 發熱門. 壽世保元·明清名醫全書大成 龔廷賢 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610.

『寶鑑』以後 中國에서 刊行된 醫書의 逍遙散 및 逍遙散 關聯方을 살펴보기 위하여 『醫方集解』(이하 『集解』라 함), 『醫宗金鑑』(이하 『金鑑』이라 함)과 현대 中國의 方劑學書籍 中 『中醫名方精釋』(이하 『精釋』이라 함) 그리고 『中醫歷代名方集成』(이하 『名方』이라 함)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集解』의 逍遙散 및 逍遙散關聯方

『集解』는 1682년에 刊行되었는데, 모두 3卷으로 汪昂이 撰하였다. 本書는 常用方劑를 그 性質에 따라 21類로 나누었다.<sup>59)</sup>

##### (1) 逍遙散

逍遙散은 退熱調經局方 治血虛肝燥하고 骨蒸勞熱하고 咳嗽潮熱하고 往來寒熱하고 口乾便澀하고 月經不調니라 柴胡 當歸灑拌 白芍酒炒 白朮酒炒 白朮土炒 茯苓一錢 甘草炙五分에 加煨薑 薄荷하야 煎이니라<sup>60)</sup>

處方은 逍遙散本方으로 麥門冬이 存在하지 않는다.

#### 2) 『金鑑』의 逍遙散 및 逍遙散關聯方

『金鑑』은 吳謙이 主編하였고 1742년에 刊行되었으며 모두 90卷이다.<sup>61)</sup>

##### (1) 逍遙散

當歸酒洗 白芍酒洗 白茯苓 柴胡各一錢 甘草炙五分 白朮土炒一錢을 上剉散하야 水一盞半하고 加薄荷하야 煎服이니라<sup>62)</sup>

處方은 逍遙散本方이고 麥門冬이 存在하지 않는 逍遙散本方이다.

##### (2) 加味逍遙散

卷四十八 婦人產後門 血崩<sup>63)</sup>, 卷四十九 前陰諸證

59) 漢醫學大辭典編纂委員會. 漢醫學大辭典 醫師文獻編.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220.  
60) 汪訥庵. 和解之劑. 醫方集解. 台北. 文光圖書有限公司. 1986. p.118.  
61) 漢醫學大辭典編纂委員會. 漢醫學大辭典 醫師文獻編.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223.  
62) 吳謙 主編. 卷四十四·婦科心法要訣. 醫宗金鑑.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1157.  
63) 吳謙 主編. 醫宗金鑑.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1232.

門 陰痛證治<sup>64</sup>), 卷四十九 雜證門 血風瘡證治<sup>65</sup>)에 加味逍遙散이 나오지만 逍遙散의 處方은 나오지 않고 1~2가지 本草만 加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麥門冬의 存在 與否는 原文에서 언급한 同書의 逍遙散을 바탕으로 敘述된 것이라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逍遙散에 麥門冬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3) 『名方』의 逍遙散 및 逍遙散關聯方

#### (1) 逍遙散

太平惠民和劑局方 柴胡去苗 當歸去苗 剉微炒 芍藥 白朮 茯苓去皮白者各一兩 甘草微炙赤半兩 原方을 爲粗末하야 每服二錢이니 水一大盞에 燒生薑一塊切破와 薄荷少許하야 同煎至七分하야 去滓熱服하니 不拘時候니라<sup>66</sup>)

處方은 『局方』의 逍遙散을 그대로 기록하여 麥門冬이 存在하지 않는다.

### 4) 『精釋』의 逍遙散 및 逍遙散關聯方

#### (1) 逍遙散

柴胡30克 白朮30克 白芍30克 當歸30克 茯苓30克 甘草15克이니 上藥을 共研粗末하고 加煨薑 薄荷少許하야 煎湯溫服하야 每服9克이니 日服3次니라<sup>67</sup>)

處方은 逍遙散本方이고 『局方』의 것을 引用하여서 麥門冬이 存在하지 않는다.

#### (2) 加味逍遙散

柴胡9克 當歸9克 芍藥9克 白朮9克 茯苓9克 甘草6克 丹皮9克 山梔9克을 水煎服이니라<sup>68</sup>)

處方은 逍遙散本方에 牡丹皮, 梔子가 加해진 것으로 『良方』의 加味逍遙散을 引用했다고 밝혔다. 麥門冬은 存在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寶鑑』 이후 중국에서 刊行된 몇 가지 書籍의 逍遙散을 살펴보았으나 麥門冬은 存在하지 않았다.

## 6. 『寶鑑』 以後의 韓國醫書

『寶鑑』以後 韓國에서 刊行된 醫書의 逍遙散 및 逍遙散 關聯方을 살펴보기 위하여 『濟衆新編』(이하 『濟衆』이라 함), 『醫門寶鑑』(이하 『醫門』이라 함) 그리고 『醫宗損益』(이하 『損益』이라 함)을 살펴보았다.

### 1) 『濟衆』의 逍遙散 및 逍遙散關聯方

『濟衆』은 康命吉의 撰으로 1799년에 刊行되었고 『內經』, 『難經』 및 歷代方書 二十餘種을 參照하여 刪繁聚要하고, 간혹 自己 見解를 附記하여 分類編成하였다.<sup>69</sup>)

#### (1) 逍遙散

寶鑑 治月經不調와 及血虛五心煩熱과 寒熱如瘧이니라 白芍藥 白朮 白茯苓 柴胡 當歸 麥門冬 各一錢 甘草 薄荷 各五分 薑三片이니라.<sup>70</sup>)

處方은 逍遙散本方에 麥門冬이 加해져 있으며 『寶鑑』에서 인용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 (2) 加味逍遙散 I

寶鑑 治血虛煩熱과 潮熱盜汗과 痰嗽似勞니라 白芍藥 白朮各一錢二分 知母 地骨皮 當歸各一錢 白茯苓 麥門冬 生地黄各八分 梔子 黃柏 各五分 桔梗 甘草各三分니라<sup>71</sup>)

處方은 逍遙散本方에 知母, 地骨皮, 麥門冬, 生地黄, 梔子, 黃柏, 桔梗이 加해져 있으며 『寶鑑』에서 인용하였다고 하였고, 『寶鑑』의 加味逍遙散 I과 동일하다. 麥門冬이 存在한다.

#### (3) 加味逍遙散 II

寶鑑 治痰中見血이니라 牡丹皮 白朮各一錢半

64) 吳謙 主編. 醫宗金鑑.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1248.

65) 吳謙 主編. 醫宗金鑑.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1256.

66) 于世良 編著. 中醫名方精釋.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3. p.48.

67) 中醫歷代名方集成.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1994. p.404.

68) 中醫歷代名方集成.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1994. p.407.

69) 漢醫學大辭典編纂委員會. 漢醫學大辭典 醫師文獻編.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274.

70) 康命吉. 卷六. 婦人雜病門. 濟衆新編. 서울. 驪江出版社. 1994. p.128.

71) 康命吉. 卷六. 婦人雜病門. 濟衆新編. 서울. 驪江出版社. 1994. p.128.

當歸 赤芍藥 桃仁 貝母各一錢 山梔 黃芩各八分  
桔梗七分 青皮五分 甘草三分**니라**<sup>72)</sup>

處方은 逍遙散本方에 白茯苓, 柴胡를 去하고 牧丹皮, 桃仁, 貝母, 山梔, 黃芩, 桔梗, 青皮를 加하였고, 引用書라 밝힌 『寶鑑』의 加味逍遙散Ⅱ와 동일하다. 따라서 麥門冬이 存在하지 않는다.

(4) 加減逍遙散

寶鑑 治子午潮熱이니라 逍遙散本方婦人에 加胡黃連 麥門冬 地骨皮 黃芩 秦朮 木通 車前子 各等分 하고 入燈心一撮이니라<sup>73)</sup>

處方은 『古今醫鑑』(이하 『醫鑑』이라 함)에서 引用하였다고 밝혔으며, 逍遙散本方에 麥門冬, 胡黃連, 地骨皮, 黃芩, 秦朮, 木通, 車前子, 燈心이 加해져 있다.

이처럼 『濟衆』의 逍遙散 및 逍遙散關聯方은 모두 『寶鑑』의 것과 同一함을 알 수 있다.

2) 『醫門』의 逍遙散 및 逍遙散關聯方

本書는 1724년에 刊行되었다.

(1) 逍遙散

入門 治月經不調와 及血虛와 五心煩熱과 如瘧이니라 白朮 白芍藥 白茯苓 柴胡 當歸 麥門冬 各一錢 甘草 薄荷 各五分 薑三片이니라<sup>74)</sup>

處方은 『寶鑑』의 內容과 같으며 麥門冬이 存在한다.

(2) 加味逍遙散

入門 治血虛煩熱과 潮熱盜汗과 痰嗽似勞이니라 白芍藥 白朮 各一錢二分 知母 地骨皮 當歸 各一錢 白茯苓 麥門冬 生地黃 各八分 梔子 黃柏 各五分 桔梗 甘草 各三分니라<sup>75)</sup>

處方은 逍遙散本方에 白茯苓, 柴胡를 去하고 牧丹皮, 桃仁, 貝母, 山梔, 黃芩, 桔梗, 青皮를 加하여 『寶鑑』의 加味逍遙散 I 과 同一하다.

3) 『損益』의 逍遙散 및 逍遙散關聯方

『損益』은 1867년에 黃道淵이 編著한 것으로 이듬해 刊行되었다.<sup>76)</sup>

(1) 逍遙散

入門 治月經不調와 及血虛와 五心煩熱과 寒熱如瘧이니라 白朮 白芍藥 白茯苓 柴胡 當歸 麥門冬 各一錢 甘草 薄荷 各五分 薑三片이니라 寶鑑<sup>77)</sup>

處方은 『寶鑑』을 引用하였다고 밝혔듯이 『寶鑑』과 同一하다.

(2) 加味逍遙散

入門 治血虛煩熱과 潮熱盜汗과 痰嗽似勞이니라 白芍藥 白朮 各一錢二分 知母 地骨皮 當歸 各一錢 白茯苓 麥門冬 生地黃 各八分 梔子 黃柏 各五分 桔梗 甘草 各三分니라<sup>78)</sup>

處方은 逍遙散本方에 白茯苓, 柴胡를 去하고 牧丹皮, 桃仁, 貝母, 山梔, 黃芩, 桔梗, 青皮를 加하여 『寶鑑』의 加味逍遙散 I 과 同一하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대로 『濟衆』, 『醫門』, 『損益』은 모두 『寶鑑』의 逍遙散을 그대로 따랐음을 알 수 있다.

### IV. 고찰

이상으로 逍遙散 및 逍遙散 關聯方에 麥門冬의 존재여부와 관련하여 역대의서들을 조사해 보았다.

逍遙散은 中國 宋代의 『太平惠民和劑局方』(1078년)에 처음 수록되었는데 『和劑局方』에는 麥門冬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후 中國에서 發刊된 方劑관련 書籍에도 마찬가지로 逍遙散에 麥門冬이 존재하지 않았다. 韓國에서는 조선시대에 간행된

72) 康命吉.卷六: 婦人雜病門. 濟衆新編.서울. 驪江出版社. 1994.p.53.

73) 康命吉.卷六: 婦人雜病門. 濟衆新編.서울. 驪江出版社. 1994.p.38.

74) 周命新 編著.卷五: 妊娠門. 新增 醫門寶鑑. 대구. 동양종합통신교육원출판부. 1987. p.361.

75) 周命新 編著.卷五: 妊娠門. 新增 醫門寶鑑. 대구. 동양종합통신교육원출판부. 1987. p.362.

76) 黃道淵. 醫宗損益-韓國醫學大系(卷25). 서울. 驪江出版社. 1994. p.1.

77) 黃道淵. 醫宗損益-韓國醫學大系(卷25). 서울. 驪江出版社. 1994. p.297.

78) 黃道淵. 醫宗損益-韓國醫學大系(卷25). 서울. 驪江出版社. 1994. p.298.

『東醫寶鑑』(1613년)의 逍遙散에는 麥門冬이 존재하고 있다. 『東醫寶鑑』의 逍遙散 관련 인용서적으로 언급한 『醫學入門』(1575년), 『萬病回春』(1587년)에도 逍遙散에 麥門冬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萬病回春』을撰한 龔廷賢의 또 다른 서적 『古今醫鑑』(1589년)에도 逍遙散에 麥門冬은 존재하지 않았다. 『太平惠民和劑局方』(1078년)과 『東醫寶鑑』(1613년) 사이에 韓國에서 출간된 書籍 중에서 逍遙散 및 逍遙散 關聯方이 존재하는 서적은 『鄉藥集成方』, 『醫方類聚』, 『救急易解方』, 『醫林撮要』 등인데, 이 중 『鄉藥集成方』, 『醫方類聚』, 『救急易解方』에는 소요산에 맥문동이 존재하지 않으며, 유일하게 『醫林撮要』에서만 맥문동을 수록하고 있으며, 『醫林撮要』에서는 『世醫得效方』을 인용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을 처방구성을 중심으로 비교해 보면 표1. 표2. 표3.과 같다.

## VI. 결론

『和劑局方』의 逍遙散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麥門冬이 『東醫寶鑑』의 逍遙散에는 麥門冬이 존재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추론해 볼 수 있다.

1. 『和劑局方』에서 처음 逍遙散을 언급할 시에는 단순히 婦人科疾患의 處方으로써 언급하였다.
2. 이후 『世醫得效方』에서 逍遙散을 응용하면서 熱疰환[煩熱門]에 麥門冬을 加하는 것으로 處方を 재구성하였다.
3. 『世醫得效方』이후 中國書籍에 나타난 逍遙散 加味方이나 加減方도 대개 麥門冬이 加해지지 않으나, 熱性疾患을 主治로 삼거나 또는 熱과 관련된 門 일부에서 麥門冬이 加해여지는 것을 알 수 있다.
4. 韓國書籍으로는 『醫林撮要』에서 처음으로

맥문동이 포함된 逍遙散을 기술하였는데, 『醫林撮要』는 『世醫得效方』의 逍遙散을 引用하고 있다.

5. 『東醫寶鑑』 逍遙散 처방은 『醫學入門』을 인용하였다고는 하지만 麥門冬이 존재하는 逍遙散이 수록된 것으로 보아 실제로는 『醫林撮要』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6. 『東醫寶鑑』 이후 간행된 중국과 한국의 의학서적들을 살펴보다도 『東醫寶鑑』의 영향을 받은 韓國醫學書籍에는 逍遙散에 麥門冬이 존재하지만, 『太平惠民和劑局方』을 원류로 여기는 中國醫學書籍에는 逍遙散에 麥門冬이 存在하지 않는다.

## 參考文獻

<논문>

1. 서승호. 東醫寶鑑에 手錄된 溫膽湯, 歸脾湯, 逍遙散 및 그 加減方에 대한 考察. 大田大學校 韓醫學研究所 論文集. 2005. 14(1). p.130.

<단행본>

1. 鄉藥集成方. 韓國醫學大系. 서울. 驪江出版社. 1994. 卷6. p.1, 81.
2. 許浚. 東醫寶鑑. 서울. 남산당. 1951. p.99, 109, 110, 159, 421, 422, 625, 626.
3. 李梴. 醫學入門. 서울. 고려의학. 1989. p.585, 513.
4. 龔信 纂輯. 龔廷賢 續編. 王立 等 校注. 古今醫鑑. 江西省. 江西科學技術出版社. 1990. p.1, 167, 299.
5. 太平惠民和劑局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5.
7. 龔廷賢. 萬病回春.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p.184, 221, 344.
8. 龔廷賢. 壽世保元. 明清名醫全書大成 龔廷賢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610, 629, 705, 715.

9. 孫應奎, 윤춘년 편. 醫家必用. 전통의학 고전 국역총서. 서울. 한국한의학연구원. 2007. 1.
10. 周命新 編著. 新增 醫門寶鑑. 대구. 동양종합통신교육원출판부. 1987. p.361, 362.
11. 金信根. 한의약서고.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87.
12. 羅天益. 衛生寶鑑. 香港. 商務印書館.
13. 醫林撮要. 國譯韓國醫學大系. 서울. 해동의학사. 1999. 卷8. p.272, 277.
14. 醫方類聚.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6. p.65, 189, 219, 398.
15. 世醫得效方. 欽定四庫全書 子部五 醫家類. 서울. 大星文化社. 1995. 卷14. p.504.
16. 陳自明. 婦人良方大全. 欽定四庫全書 子部五 醫家類. 서울. 大星文化社. 1995. 卷10.
17. 救急易解方. 韓國醫學大系. 서울. 驪江出版社. 1994. 卷1. p.2, 3.
18. 于世良 編著. 中醫名方精釋.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3. p.48.
19. 危亦林. 世醫得效方. 中國醫學大系. 서울. 大星文化社. 1994. 卷14. p.504.
20. 汪訥庵. 醫方集解. 台北. 文光圖書有限公司. 1986. p.118.
21. 中醫歷代名方集成.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1994. p.404, 407.
22. 黃道淵. 醫宗損益. 韓國醫學大系. 서울. 驪江出版社. 1994. 卷25. p.297, 298.
23. 郭鑒. 醫方集略. 古蹟本.
24. 康命吉. 濟衆新編. 서울. 驪江出版社. 1994. p.38, 53, 128.
25. 漢醫學大辭典編纂委員會. 漢醫學大辭典 醫師文獻編.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117, 123, 134, 197, 219, 220, 223, 274.
26. 吳謙 主編. 醫宗金鑑.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1157, 1232, 1248, 1256.
27. 袁鍾圖 主編. 中醫辭海. 河北.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9. p.832.
28. 中國醫籍通考. 上海. 上海中醫學院出版社. 1991.

考. 上海. 上海中醫學院出版社. 1991. p.2513.

<기타>

1. 聖濟總錄. [<http://www.zysj.com.cn/lilunshuj/shengjizonglu/122-163-3.html#m0-0>]

書籍	白朮	白茯苓	芍藥	柴胡	當歸	甘草	麥冬	薑	薄荷	비고
局方	√	√	√	√	√	√		√	√	
總錄	I	√	√	√	√	√		√		
	II	√	√	√	√	√				
良方	√	√	√	√	√	√				
衛生	√	√	√	√	√	√		√	√	
得效	√	√	√	√	√	√	√	√		
鄉集	√	√	√	√	√			√		+ 棗
類聚	√	√	√	√	√	√		√	√	
集略	I		√	√	√	√	√	√		+ 黃芩, 熟地, 川芎, 人參, 半夏
	II	√	√	√	√	√		√	√	+ 黃芩, 生地, 陳皮, 知母, 半夏
	III			√	√	√	√			+ 黃芩, 生地, 川芎, 人參, 烏梅
撮要	I	√	√	√	√	√	√	√		
	II	√	√	√	√	√		√	√	+ 棗
入門	√	√	√	√	√	√		√	√	
回春	√	√	√	√	√	√		√	√	
保元	I		√	√	√	√	√	√		+ 黃芩, 熟地, 川芎, 人參, 半夏
	II	√	√	√	√	√		√	√	
寶鑑	√	√	√	√	√	√	√	√	√	
集解	√	√	√	√	√	√		√	√	
金鑑	√	√	√	√	√	√			√	
名方	√	√	√	√	√	√		√	√	
精釋	√	√	√	√	√	√		√	√	
濟衆	√	√	√	√	√	√	√	√	√	
醫門	√	√	√	√	√	√	√	√	√	
損益	√	√	√	√	√	√	√	√	√	

표 1. 逍遙散(飲)의 處方 構成

書籍	白朮	白茯苓	芍藥	柴胡	當歸	甘草	麥冬	薑	薄荷	비고
類聚	√	√	√	√	√	√		√	√	+ 遠志, 桃仁, 蘇木, 紅花
撮要	√	√	√	√	√	√		√		+ 遠志, 桃仁, 蘇木, 紅花
入門	√	√	√		√	√	√			+ 地骨皮, 生地, 梔子, 黃白, 桔梗
回春	I	√	√	√	√	√		√	√	+ 牡丹皮, 梔子
	II	√	√	√	√	√		√		+ 遠志, 桃仁, 蘇木, 紅花, 生地
醫鑑: 開迷散	√	√	√		√	√		√		+ 遠志, 桃仁, 蘇木, 紅花, 生地
保元	√	√	√	√	√	√		√		+ 遠志, 桃仁, 蘇木, 紅花, 生地
寶鑑	I	√	√	√		√	√			+ 知母, 地骨皮, 生地, 梔子, 黃白, 桔梗
	II	√		√		√				+ 牡丹皮, 桃仁, 貝母, 梔子, 黃芩, 桔梗, 青皮
精釋	√	√	√	√	√	√				+ 牡丹皮, 梔子
濟衆	I	√	√	√		√	√			+ 知母, 地骨皮, 生地, 梔子, 黃白, 桔梗
	II	√		√		√				+ 牡丹皮, 桃仁, 貝母, 梔子, 黃芩, 桔梗, 青皮
醫門	√	√	√	√		√	√			+ 知母, 地骨皮, 生地, 梔子, 黃白, 桔梗
損益	√	√	√	√		√	√			+ 知母, 地骨皮, 生地, 梔子, 黃白, 桔梗

표 2. 加味逍遙散의 處方 構成

書籍	白朮	白茯苓	芍藥	柴胡	當歸	甘草	麥冬	薑	薄荷	비고
入門	√		√		√	√	√			+ 牡丹皮, 桃仁, 貝母, 梔子, 黃芩, 桔梗, 青皮
回春	√	√	√	√	√	√	√			+ 胡黃蘗, 黃芩, 地骨皮, 陳芎, 木通, 車前子, 燈心
醫鑑	√	√	√	√	√	√	√			+ 胡黃蘗, 黃芩, 地骨皮, 陳芎, 木通, 車前子, 燈心
保元	√	√	√	√	√	√	√			+ 胡黃蘗, 黃芩, 地骨皮, 陳芎, 木通, 車前子, 燈心
寶鑑	√	√	√	√	√	√	√	√	√	+ 胡黃蘗, 黃芩, 地骨皮, 陳芎, 木通, 車前子, 燈心
濟衆	√	√	√	√	√	√	√	√	√	+ 胡黃蘗, 黃芩, 地骨皮, 陳芎, 木通, 車前子, 燈心

표 3. 加減逍遙散의 處方 構成

